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축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문회장 양승철 변호사입니다.
동문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축하를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힘든 수험 생활 끝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들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두께의 교과서, 끝이 안날 것 같은 시험범위, 손목이 아플 정도로 작성해왔던 수백장의 답안지, 내가 시험을 보는 것인지 시험이 나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종평 시험, 5일 동안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등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법조인의 모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는 법전원 2기로 2013년 1월에 졸업식을 했는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법전원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했던 기억,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 동기들과 단체로 중국 로펌에 방문했던 기억, 가인변론법정대회에 참여한 기억, 졸업여행으로 보라카이로 갔던 기억 등이 많이 납니다.

졸업식 당시 저는 무사히 졸업을 했다는 안도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변시 합격자 발표와 취업, 결혼 등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지금 비슷한 감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차 변호사로, 재심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사무실에

서 2년간 고용변호사 생활을 했고, 부장판사 출신 김철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3년간 고용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법무법인 해담을 설립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혹 후배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마다 제 경험에 비추어 해드리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법조인의 가장 큰 덕목은 실력, 성실, 성품인 것 같습니다. 실력, 성실, 성품이 훌륭하면 그 사람은 어느 영역에서도 송곳처럼 드러나게 마련이고, 함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둘째,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제가 선임한 사건들을 보니, 그 중 상당수는 제가 근무했던 박준영 변호사님과 김철현 변호사님이 소개시켜주신 사건이었고,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소개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동기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인적 자산입니다.

셋째,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기들을 보면 10년 전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처음에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 같아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성이 차지 않았지만 나중에 자기 영역을 확실히 마련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조인의 삶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영역을 알아가게 되고, 여러 사람의 삶을 간접 경험하게 되면서 나를 돌아보고 세상에 대하여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법조인의 삶은 여행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같고 닦은 실력으로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600여명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

분의 여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꿈을 오랫동안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멋진 법조인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 꿈에 닮아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